

광주 곳곳 걷기 좋은 길 만든다

市, '도심 순환형 푸른길' 기본설계 용역 9월 마무리

2020년까지 영산강·황룡강 57km '100년 숲길' 조성

푸른길 외에 걸을 수 있는 길들이 2020년까지 광주 곳곳에 생겨난다. 보행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여건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길들이 제대로 정착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백운동 푸른길과 도시공원인 월산·발산공원을 거쳐 광주역 동쪽으로 이어주는 '도심순환형 푸른길'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착수보고 후 대상지 주변 공

간 활용 현황 등 기초조사 및 분석, 사업 타당성 조사, 디자인 개발 및 기본설계에 들어갔다. 향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 길이 만들어지면 푸른길에서 공원과 구도심을 가로지르는 도심 명소가 탄생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동구 제봉로에는 폴리 둘레길&생태탐방길 조성이 지난해 말 완료됐다. 9470만 원을 투입해 소동오두막~GD폴리카지 태양광 광광등 117개,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주차장 옹벽 담장위에 목재 데크 및 태양광광등 25개, GD폴리 도로 양쪽 입구에 폴리 디자인 의자(4m) 2개 등을 설치했다.

광주 근대문화의 산실로 불리는 양림동에 역사문화길 2단계 사업도 오는 3월 착공할 예정이다. 이강하 미술관, 최흥종 기념관과 함께 양림오거리~양림떡볶이까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도로를 개선하는 등 역사문화길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오는 2020년까지는 도시 외곽에 해당하는 영산강(월산보~승촌보), 황룡강(선운지구~영산강 합류지점) 제방 57km에 모두 100억원을 들여 '광주 100년 숲길'이 조

성된다. 지난 2016년에는 3개 구간(7.6km)에 목련 등 11종 1859주를 심었으며, 올해는 오는 3월까지 나무 식재를 마칠 예정이다. 시는 구간별로 테마 숲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상무중앙로 등 도심 도로 2곳에는 3억 6000만원을 들여 나무를 심고,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심 내 차량이 급증하면서 광주가 걷기 불편한 도시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도심 내외에 다양한 보행길을 만들어 시민들이 걸으면서 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유조선-화물선 충돌 32명 실종 이란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파나마 선적 유조선 '상치'(SANCHI)호가 7일(현지시간) 중국 동부 해안에서 홍콩 선적 화물선 '창팡수이정'(CF CRYSTAL)호와 충돌한 후 불타고 있다. 이 사고로 선원 32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선거부담 없는 전남도, 상반기 국고 확보 승부수

이재영 권한대행 "국고 반영 신규사업 44건 전략적 접근"

전남도가 올 상반기 국고 확보에 승부를 걸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설 단계장이 없기 때문에 국고 확보 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8일 실국장 토론회에서 "전남은 지방선거 부담이 없다"며 "올 상반기에 내년 국고 확보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

히 "예산 반영은 중앙부처 실무자 접촉과 비례한다. 중앙으로 가라"고 권장했다.

다른 지자체가 단체장 선거 출마로 어수선할 때, 전남도는 국고 확보 사업에 몰입하자는 의미다.

국고 확보 전략은 두가지다. 이미 확보한 올해 국고 예산 중 신규사업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정부 기조에 발맞춘 신규 사업을 발굴

해 내년 국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올해 국고예산에 신규사업 44건이 국회에서 추가로 반영됐는데,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생각지 않은 사업이 발생하면 후순위로 밀어내는 경향이 있다"며 "각 실국은 해당 부처에 전략적 논리로 접근해 빨리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예산을 일찌감치 배정받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내년 정부 예산 확보는 신규사업을

어떤 아이템으로 발굴하느냐와 얼마나 자주 중앙부처 실무자와 접촉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당면한 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발전계획을 토대로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해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분석, 여기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광주전남연구원 등 출연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고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민선 7기를 산뜻하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오는 23일 내년 국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도심 속 마을 존속 지원사업 시행

지속가능 공동체 확대 운영

광주시가 도심 속에 남아 있는 마을들이 존속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기존 마을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던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 사업'을 지속가능한 생활실천 운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올해 지속 가능한 광주 공동체를 위해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 사업'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에만 국한돼 있던 사업 영역을 경제, 사회, 도시재생 등 '지속가능한 광주 만들기' 5차 의제 17가지 실천의제로 늘려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업비도 지난해 2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고 참여 규모도 마을공동체와 학교 등 12곳에서 30여 곳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공모사업 공동체 부문 참가자격은 광

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주민조직, 비영리 단체 또는기관이고, 학교 부문은 광주지역 초·중·고·대학교나 동아리이며, 공동체와 학교 모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학교 부문은 마을과 연계한 지역사회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현장체험형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주변 유휴 공간 미관개선사업 등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활동이 해당된다.

접수 기간은 공동체부문은 지난 3월부터 이달 31일까지, 학교부문은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다. 사업제안서는 시청 2층 협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공동체는 9일, 학교부문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환경정책과(062-613-4124)나 협의회(062-613-4174)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주 오리농장서 10일만에 또 AI 검출

5만3500마리 살처분

국내 최대 오리산지인 나주에서 또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첫 발생이후 10일 만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 나주시 산포면 한 육용오리 농장으로부터 오리 1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 농장은 사조화인코리아 계열로 모두 1만6500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0월 AI가 발생한 적 있으며, 지난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일제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다던 곳이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는 물론 반경 3km 이내 오리(5농가, 5만3500마리)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당국은 농림축산 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사료, 분뇨 등 농장내 오염물 처리에도 힘쓰고 있다.

반경 10km 이내 38농가에서 키우는 가금류 155만8000마리에 대해서는 일제 검사를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오면 나주에서는 지난해 12월28일에 이어 옮겨울 들어 두번째 AI다.

나주에 있는 사조화인코리아 도축장 오리에 대한 검사 결과, 고흥 농장에서 출하된 오리에서 AI가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19일 전북 고창에서 첫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뒤 옮겨울 들어 현재까지 AI 발생 건수는 모두 11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이 전남에서 발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문화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전남도 다음달 발급

전남도와 전남문화관광재단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를 다음달 1일부터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201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등 문화 소외계층이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활동 등에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발급 대상은 저소득층 9만2400명으로, 1인당 연간 7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오는 2월1일부터 온·오프라인 동시발급이 가능하며, 1월30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재단 통합문화이용권 담당(061-280-58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 송도건설

SONGDO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송빌딩
Tel. (062) 382-8879

분양 문의

- 소촌동 | 24py ☎(062) 610-9226
- 주월동 | 18py ☎(062) 652-5600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옥암동
- 전남 영암군 | 삼호읍
- 전남 화순군 | 화순읍
- 전남 담양군 | 대전면
- 전북 완주군 | 이서면

가족회사

(주)금호주택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지산동, 소재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차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안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